■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최근 취업이민 처리 속도 개선

그동안 심각한 적체를 보여왔던 취업이민 수속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 8개월을 전후하여 영주권을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고 있던 케이스들이 작년 여름 이후 계속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져 고심해 오셨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 학생 신분 변경 시 Bridge (Gap) 규정 적용 중단 (지난번에 컬럼에 이어 상세하게 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부터 학생 신분 변경 시에 적용되어 오던 30일 Gap 규정(일명 Bridge 규정)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7월20일에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학교 시작 전에 적어도 30일 전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 규정을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 변경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이전 비이민 신분이 학교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Gap)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방문 신분(B2)으로 신분 변경(일명 Bridge)를 해 주어 학생 신분 변경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해 왔었습니다.

지난 7월20일에 이민국은 이 규정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적용 중단에에 따라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제는 브리지 없이 이전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시지 않고 현재 신분이 만료되지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이전 신분이 만료되고 학생 신분이 변경이 거절되면 서류미비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Gap으로 두시고 학생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8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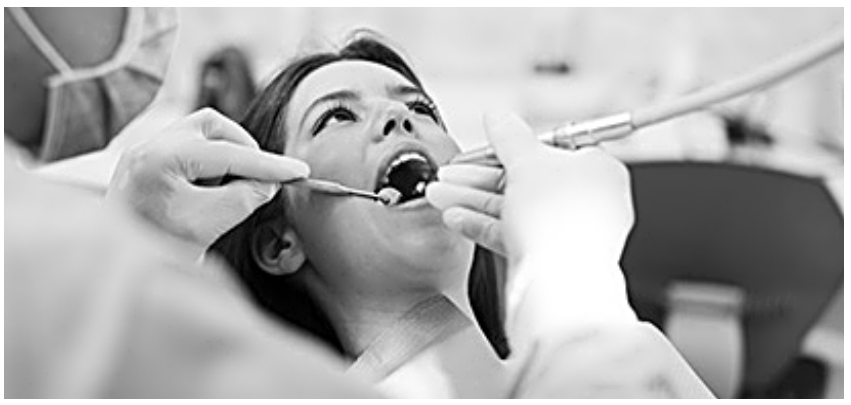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LA Office: (213) 232-1655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의 필요성



임플란트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효율성을 보이면서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계시고 시술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가 잘 되었으니 전담 치과의사에게 가셔서 크라운 하시고 다시 한 번 체크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은 꼭 체크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거 끝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해요?"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니까 썩지도 않는데 뭘 관리해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술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그 관리에 관한 계몽에는 소홀히 한게 아닌가 반성도 됩니다.

치아와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조직은 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는 몸의 일부 중 하나로 만들어져 그 연관 조직들이 부착 상태가 아주 긴밀합니다. 치아의 뿌리는 신경을 싸고 있는 경조직은 상아질(dentin)과 백아질(cementu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상아질이 차지하고 있고 백아질이 상아질 표면에 얇게 코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아질의 기능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치아 주위 뼈와 치아 자체를 잇는 콜라젠 섬유들이 부착되는 곳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섬유들을 치아에 붙이는 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콜라젠 섬유들이 백아질에 부착되게 되면 아주 강한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우리 몸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물질 입니다. 면역 반응이 없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티타늄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에는 앞서 말한 백아질이 없습니다. 콜라젠 섬유들이 단단히 붙어 있게 해주는 아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콜라젠 섬유가 아주 풍부한 조직이고 피부에 상처가 나 흉이 질 때 흔히 보는 조직과 아주 유사한 조직 성분 분포를 보입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꽉 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1381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